

경전 속 진리 詩로 만난다

원익범 교수가 펴낸 잠언시집 '사람은 생각 실린 구름' 교리·사상 감칠맛나게 전달 젊은이들 위한 현대판 화두

원익범 동국대 명예교수(78)가 오랜만에 잠언시집 <사람은 생각 실린 구름>을 내놓았다. 불교학 논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책을 펴내지 않기로 소문난 원교수. 그가 평생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잠언시집을 펴낸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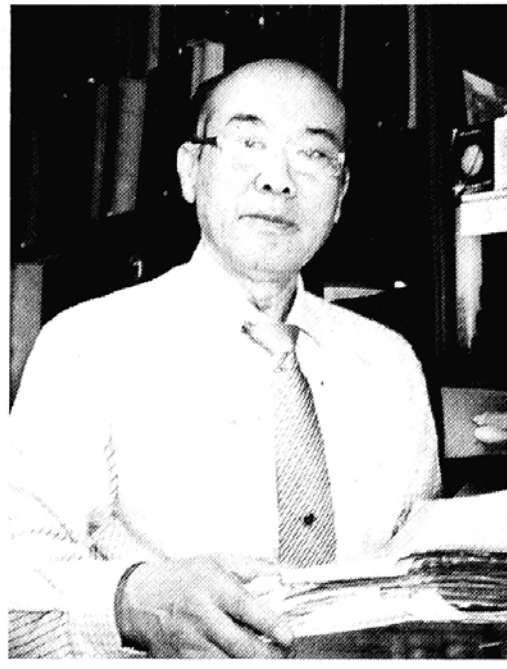
이들이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108편을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안보이는 부처님이/ 밖으로/ 걸어 나와/ 착한 일을 할 때/ 보이는 죽은 부처님/ 안 보이는 산 부처님/ 보이기 안 보이기도 죽어도 살아 있는/ 세 부처님이 하나로 보이나니/ 이것이 깨달음이요/ 견성성불이라/ 견성성불 잘못하면/ 얼어 먹고 사는 거지만도 못하리라"(보이는 부처님 속에 안 보이는 부처님이 있네' 중에서).

원교수는 한편을 정리하는데 단숨에 쓴 것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린 것도 있다. 원교수가 '평생동안 공부한 결과'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편 한편 정독해 가다 보면 원교수의 고실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처럼 산문처럼 자유롭게 쓰여진 것은 원교수가 틈틈이 한시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바다를 담은 그곳은 없어도/ 바다는 말에는/ 바다가 담긴다/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도/ 사랑이라는 말에 담겨져/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간다..."(하늘을 담은 그곳은 없어도' 중에서)'는 <중하함경>에 담긴 사제제를 특유한 시적 감각으로 표현해 낸 것처럼 이 책의 전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하나씩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행복과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길 바랍니다. 각종 경전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 교리와 사상을 감칠맛나게 간결한 시어로 소화해 낸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각종 경전에 스며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요즘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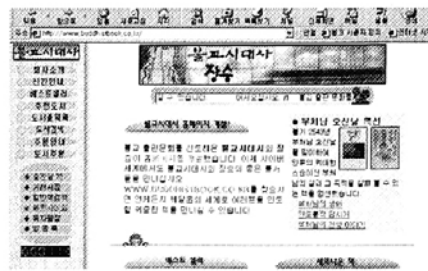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원교수가 30여년 동안 관음회, 달마회, 만불회 등의 법회용으로 써온 4천여편의 글 가운데 젊은



◇대중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 지난 30여년동안 법회용으로 집필한 원교수를 정리하고 있는 원익범교수.

전에서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농축된 시어는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요소가 된다. 지생 권,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불교시대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인터넷 불서출판 시대

불교시대사 홈페이지 독자초대 민족사·불광·시공사도 정보제공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판사의 불서를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는 홈페이지(www.buddhistbook.co.kr)를 개설 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입문서, 교리사상, 전기 등 불교시대사에서 출간한 모든 책들이 분류별로 수록돼 있으며 신간안내, 간행예정 도서 등까지 자세한 분류와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 <한국불교인명사전> 등 불교관련 자료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한편 부다피아 등 불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링크하여 정보를 제공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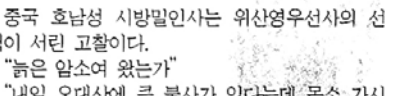
부다피아(www.buddhopia.com)에도 민족사 불광시공사 등의 불교출판사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각종 불서들이 목록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돼 있다.

'불교사상의 이해' 교재용 재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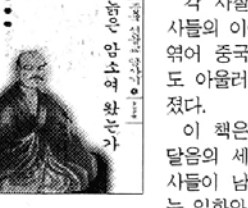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교양교재 <불교사상의 이해>가 재출간됐다. 이 책은 전국 각 불교교양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재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이 책은 어느 책과는 달리 이해하기 쉽게 강의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은 종교로서의 불교, 근본불교,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1백여개의 불교용어 해설과 깊이 있는 불교학 공부를 위해 참고도서 목록까지 자세히 실려 있어 불교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불교시대사 권, 값 1만2천원.

이은윤씨 중국선불교 답사기 '늑은 암소여 왔는가'



중국 호남성 지방발원사는 위상영우선사의 선맥이 서린 고찰이다. "늑은 암소여 왔는가" "내일 오대산에 큰 불사가 있다는데, 몸소 가시지요" 유철마리는 노비구니스님이 선장 위상영우선사를 찾아 나온 선문답이 생생히 전해 내려오는 위양종의 주요 도량 가운데 한 곳이다. 이은윤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쓴 중국선불교 답사기 네 번째 권인 <늑은 암소여 왔는가>는 중국 호남성 13곳의 선종 고찰을 현장 답사한 기록을 담았다.



각 사찰을 대표했던 13선 사들의 이야기들은 중심으로 엮어 중국 선불교의 진면목도 아울러 볼 수 있게 꾸며졌다. 이 책은 운수남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선 사들이 남긴 화두를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흥미롭게 풀이해 주고 있다. 책 앞부분에는 실린 30여점의 현장사진이 생생함을 더해준다. 중국선불교 답사기는 <밤그릇이나 씻어라(하북·하남성편)>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이니라(인취·호북·광둥성편)> <평상심이 곧 도다(강서성편)> 등 3권이 출간됐다. 자작나무 권,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허공의 몸을 찾아서	지 명	불교시대사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공사
4	무론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5	파란노스님의 한국선수행기	버스 웰	예문서원
6	선림승보전(上)	원 철	장경각
7	보살의 마음 증생의 마음	일 타	민족사
8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족사
9	나는 누구인가	이호준	청하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림

구입문의: (02)737-0695

빈손 상전스님 지음

욕망과 집착서 벗어나야하는 까닭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사라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데 내 욕이 생기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집착으로 괴로워한다" 월간 해인지의 편집장을 역임한 상전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이 '해인' '해원' 등에 연재했던 시와 산문들을 정리한 <빈손>이 나왔다. 이 책에는 일상의 단상, 자유, 무소유 등에 대한 사유, 끊임없는 자기반성, 출가의 의미, 구도자의 자세, 삶의 진정한 가치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치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맑고, 법당의 향내음처럼 그윽하게 전해진다. 저자는 "인생을 진정 아름답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미래지성 권, 값 7천원.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신행경험 토대로 쓴 불교사상 산책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여겨라." 불자라면 부처님의 이같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여기에는 불자를 가운데 뜻밖에 부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가 펴낸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은 자신이 불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보게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수필집. 이 책에는 오늘의 선지식과 종교의 대립 갈등과 화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대와의 대화, 불교사상 산책을 비롯 저자의 대불련 운동, 순승의 시정등 신행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수록돼 있다. 민족사 권, 값 5천5백원.

20 창립 20주년

믿을 수 있는 책, 믿을 수 있는 회사 **김영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회동 17 TEL. 745-4823 FAX. 745-4826

진리와 행복의 바다로 이끄는 김영사 불교총서

현재 인기 독점 속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불교연구서의 금자탑

불타의 세계

불교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최근까지의 불교학 및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계 초유의 대작. 세계적인 불교학계 거장들의 6년에 걸친 현지 고증 및 집필. 수백 점의 천연사진과 자료, 2년간의 우리말 작업 끝에 나온 화제작.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처의 삶과 여정. 그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김지연 옮김/양장본 642쪽/값 35,000원

행복한 마음

생각만으로는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음 하나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다스림의 저 밖에 있고, 삶은 때로 철칙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일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것 하나를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 출간 이후 14년간 48쇄를 거듭 찍은 승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의 바로 그 책. 김정성 지음/양장본 530쪽/값 8,900원

마음에 따라

"부처님께서 무슨 하릴 말씀이 있었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한 이런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대의 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이의 입장에 따라 나는 또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갖지 마라." 백성욱 기르/김정수 옮김/양장본 225쪽/값 6,900원

禪 아록 시리즈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주해/양기봉 옮김/양장본 315쪽/값 7,000원
달마아록	나카가와 세이진 주해/양기봉 옮김/양장본 299쪽/값 7,500원
초기선종사 1,2	나카가와 세이진 지음/양기봉 옮김/양장본 1권 485쪽 2권 368쪽 1권 값 14,900원 2권 값 6,000원
방개사아록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양기봉 옮김/양장본 306쪽/값 8,500원
대체서	이리야 겐조 지음/양기봉 옮김 7월 출간 예정

불교학술서

대승불교개설	하리가와 아카리 외 편자/정승석 옮김/신국판 349쪽/값 7,500원
불교요설	에가쿠 마에다 지음/석오진 옮김/신국판 188쪽/값 3,000원
바웃드라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백 권 옮김/신국판 363쪽/값 4,500원

인도고대사

람 사란 사르마 지음/이광수 옮김/양장본 386쪽/값 7,000원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박인재 옮김/양장본 189쪽/값 5,900원

우편판매 및 법보시용 단체구입 안내

-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우편판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5권 이상 주문시 특가판매합니다. 전화문의: 745-4823(내선번호 101)